

H.E. Noureddine Sefiani

1947년 모로코 출생. 1976년 국립행정대학에서 *The moroccan policy of oil products distribution*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9년 국립법률대학에서 *Morocan-American relations from 1776 to 1987*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 UN 모로코 대사관 1등 서기관(1971-1973), 모로코 외무부 장관 수석 비서관(1976-1977), 런던 모로코 대사관 문정관(1982-1985)등을 거쳐 현재 주한 모로코 대사로 있다.

저서로는 *Morocco's position on Delimitation in the law of the Sea Conference*, R.J.P.E.M., 1976가 있다.

# 아랍세계 및 서구세계와의 관련하에서 살펴본 마그레브의 과거와 미래

누레딘느 세피아니

서울대학교의 지성인들과 같이 훌륭한 청중앞에서 마그레브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신 서울대 불어문화권연구소와 이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마그레브의 여러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 상호이해와 우호가 더욱 신장되리라 믿습니다. 대화와 상호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이러한 만남을 마련해 주신 이환 교수님과 그외 여러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환 교수님이 제시하신 주제는 마그레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인데 이는 매우 흥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마그레브의 역사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자격이 있는 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학문이고 현재와 미래를 밝히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분야의 질문에 대해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드릴지라도 관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표는,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마그레브에 대한 개괄적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문외한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그레브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자와 마찬가지로 ‘옹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금언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의 강연을 너무나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그를 초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아십니까?” 대답은 만장일치로 “아니오, 모릅니다.”였습니다. 그 선생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지 모르신다니 강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군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몇주일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은 두번째로 그 선생을 초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첫번째 강연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러분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첫번째 경우를 상기하고는 모두 “예,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선생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지 아신다니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라고 대답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몇주일 후에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그 선생을 초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선생은 예전처럼 “여러분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아십니까?”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은 피를 내어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예!”라고, 오른쪽에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제가 강의할 내용을 이미 아는 왼쪽의 학생들이 오른쪽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몇가지 정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정의하기에 앞서 공간을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그레브”란 무엇을 뜻하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원적으로 “마그레브”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아랍세계는 “마슈렉”과 “마그레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즉 동아랍국가들과 서아랍국가들이죠. 또한 마그레브에는 “해지는 나라”란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슈렉에는 “해뜨는 나라”란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마그레브는 현재 튀니지, 알제리, 모리타니, 리비아, 모로코, 이렇게 다섯 나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마그레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레브의 역사와 과거는 풍부합니다. 한국의 화려한 역사처럼 마그레브의 역사는 몇천년에 이르고 저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올라 갑니다. 이 지역에 한때 머물렀던 로마인이나 페니키아인들을 인용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훨씬 더 가까운 과거입니다. 시인처럼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레브의 과거를 형성했던 주요한 시기들을 재검토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시기는 마그레브의 회교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교는 7세기 초, 즉 632년에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47년 리비아가 회교화되었고, 튀니지의 케라우안 Quairouane은 670년에 회교화 되었습니다. 7세기 말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마그레브가 회교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마그레브의 회교화 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그레브인들은 욱바 입누 나피 Okba Ibnou Nafii의 아랍군대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예로 히브리 신앙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했던 한 여인의 저항을 인용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카이나 Al Kahina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단 회교를 받아들여지게 되자 마그레브인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회교의 대변인과 옹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그레브는 아랍군대들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스페인과 안달루시아에 회교의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마그레브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711년에 마그레브의 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 남단에 정박했습니다. 이 지휘관의 이름은 타릭 입누 지아드 Tariq Ibnou Zyad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가지 면에서 역사에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 이 장군이 상륙했던 지점에는 지명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상륙 위치를 지브랄타 Gibraltar라 부릅니다. 아랍어의 제벨 타릭 Jebel Tariq으로부터 따온 이름이죠. 즉 지브랄타 Gibraltar는 타릭 Tariq 산(山)이란 뜻입니다.

또한 이 장군이 남긴 말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지브

탈타에 상륙한 장군은 그의 모든 배를 불태우고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적이 여러분 앞에 있고 바다가 여러분 뒤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한가지 길만이 남아 있다. 바로 승리의 길이다!”

매우 급속도로 스페인은 아랍과 회교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732년이 또한 중요한 해입니다. 프랑스에서 프와티에 Poitiers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마그레브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63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던 회교가 정확하게 1세기만에 프랑스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1492년이라는 해를 상기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시선을 돌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492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해에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교황은 칙서를 발표하여 아메리카를 스페인령과 포르투갈령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동쪽을 소유하게 되었고 스페인이 서쪽을 소유하게 되었죠. 브라질이 오늘날 스페인어 보다 오히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1492년 스페인에서 회교왕국은 종언을 고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마그레브의 영향이 8세기 동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영향에 대해 몇가지 검토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행운의 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지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756년에 압데라아만 아다킬 Abderrahman Addakhil에 의해 도시 코르도바가 세워졌고 이 도시는 안달루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紙의 100주년 기념호인 1988년 7월호에 한 논문을 썼던 토마스 아베크롬비 Thomas Abecrombie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코르도바는 압데라아만 Abderrahman 3세와 그의 후손들의 150년 통치기간 동안, 스물 한 개의 교외와 오백 개의 회교사원, 삼백 개의 공동목욕탕, 칠십 개의 도서관, 그리고 저녁이면 가로등이 켜지는 포장도로를 가진 오십만 인구의 수도였다. 코르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써 그 시대 세계의 문화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이나 바그다드와는 경쟁상대였다.”(「무어인들이 스페인을 통치할 때」, p.96)

다음, 두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이 시기에 그리스 사상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대 그리스 작가의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사상의 발전을 가져왔고, 안달루시아에 있던 아랍 대학들에 의해 지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알폰소 Alfonse 10세가 이 지식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사항입니다. 13세기에 그는 기독교도, 회교도도, 유대인들로 구성된 대학 교수단에게 아랍어로 된 중요한 저서들을 라틴어로 번역 하도록 했는데, 그 저서들은 아베로에스 Averroes (Ibn Rushd)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설, 수학에 대한 작업과 연구, 그리고 특히 알 카와 리즈미 Al Khawarizmi에 의한 대수학과 같은 것들입니다. 로그리즘 Logarithme(대수)이라는 말은 바로 이 수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500년 동안 의학 참고서로 이용된 입누 시나 Ibnu Sina의 저서 『아비센 교범 Canons d'avicennes』도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그레브의 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마그레브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변화, 발전시켜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 냈으며 그 당시 중세를 살고 있던 이웃 유럽에 이를 전파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서 또한 마그레브는 역사의 부침을 겪어왔다는 것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역사를 조망해 볼 때, 마그레브는 그 주변국들과 두 방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향하는 수직선의 방향과 마그레브를 그 동양적 뿌리로 이끌어주는 수평선의 방향이 있는데, 이러한 두 관계의 근저에는 모두 경제적, 상업적, 군사적, 문화적, 정신적, 민족적인 동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대가 되는 1492년의 재정복 reconquista을 고비로 마그레브는 퇴조를 맞게 되었고, 팽창일로의 유럽에 대항해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우틸리아 Kautilya가 제시한 6개항의 조치- 평화와 전쟁, 기다림과 행동, 타국에의 호소와 양다리 걸치기-들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시행된 조치들의 몇몇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8년 8월 4일은 마그레브와 유럽의 관계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가들은 세 왕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 날에 세 왕- 모로

코의 두 왕과 포르투갈의 왕 동 세바스티앙 Don Sébastian-의 전투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웨드 알 마가진 Oued Al Makhazine 강(江) 근처에서 터졌으므로 웨드 알 마가진 전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마그레브와 그 이웃 유럽의 관계에 중요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도 유럽 각국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나 그 이외의 여러 국가들을 이미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브랄타 해협을 사이로 유럽과 단지 11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그레브에서는 라라슈 Larache, 탕제 Tanger, 마자강 Mazagan 등의 몇몇 해안도시만을 점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포르투갈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새화된 점령 도시들은 마그레브의 국가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세 왕의 전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왕이 직접 진두에 서서 수천의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모로코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뒤이은 일련의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무기의 우위는 오히려 침략당한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그때부터 즉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마그레브가 대규모로 무장침입을 시도한 적이 더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공세에 직면한 마그레브가 그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의 또다른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사략선(私掠船), 즉 전시에 적국의 상선을 나포하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장선이 있습니다. 트리폴리, 알제, 살레에 이르는 항구를 소유한 마그레브 선단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마그레브 해안을 지나는 유럽의 선박들을 공격했는데 주로 견제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그레브는 외부와의 세력균형을 위하여 단지 전쟁이라는 방법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 노력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로코와 영국간의 관계를 예로 들 때, 가장 오래된 사례는 영국 왕 장Jean이 세명의 특사를 1213년 모로코에 보낸 사실입니다. 영국 왕은 국내 문제를 안고 있었고, 또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는 정적과 대립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로코왕에게 동맹과 원조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절에 참여했던 알방스 Albans 수도원의 매튜 파리스 Matthew Paris 란 수도승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P.D.Rogers의 책 『1990년까지의 영국-모로코 외교사』, p.1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492년 교황의 명령에 의해 점령지 분할이 가능할 정도였고 15세기까지 유럽의 외교관계는 교회가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인된 이론이었는데,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왕이 회교 국가의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매우 발전된 현실 정치 감각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당시 종교가 정치의 우위에 있었다는 기존 관념을 극복하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국제 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평화적인 외교관계의 경우로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왕 앙트완느가 1592년에 모로코에 대사를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사의 이름은 몽포르였고 그는 두나라 사이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외에도 루이 14세 당시 프랑스 주재 모로코 대사는 모로코 왕 물레이 이스마엘 Moulay Ismael을 대신해 콩티 공주에게 청혼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도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현재 여왕의 조상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1577년에 알 만수르 아다비 Al Mansour Addahbi 왕 당시 하긴스 Hagens 대사를 보냈습니다. 이 두 국왕들의 관계는 흥미로운데 앞서 말한 책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두 국왕은 대사들을 통해 규칙적인 서신 왕래를 유지하고 일종의 협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한 연합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대사들의 교류외에 또한 마그레브의 각 국가는 유럽의 열강들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들은 무수히 많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히 협정들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 마그레브국가들은 유럽 열강의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한다.

-- 이러한 자유를 부여받는 대신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몇몇 의무를 존중한다.

일반적인 원칙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과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레브가 사용한 방법을 밝혀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의 안전과 상거래의 자유

-- 거류민들 사이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영사들의 수용

-- 호텔에 머무를 자유, 교회에서 기도할 자유, 묘지를 얻을 자유

-- 상업자유 보장과 상품판매의 자유보장

-- 종교의식의 자유보장

사실 이 협정들은 유럽과 마그레브 사이의 상업발전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가 그 시대에 설탕을 수출하고 이태리 대리석과 영국이 인도로부터 가져온 차를 수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는 영국 상인들에 의해 모로코에 소개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두 나라 사이의 번창하는 상업 덕택에 모로코의 한 집단이 19세기의 영국 도시 맨체스터에 정착했습니다. 이 집단은 압데라아만 하지 Abderrahman Hajji 라는 한 시인을 배출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 마그레브인의 삶을 그렸습니다.

마그레브에 의해 취해진 이 여섯가지 조치들 덕분에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영향이 계속 존재하지만 역시 프랑스의 영향이 주조를 이루게 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그레브는 별 어려움 없이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알제리는 19세기 중반에, 튀니지는 19세기 말에, 모로코는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는 리비아를 제외한 이 지역 모든 곳에 확산되었습니다.

모로코에는 프랑스 문화 이외에도 스페인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

아 있는데, 모로코의 북부는 예전에 스페인의 보호령이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문화는 프랑스로 된 마그레브 문화가 탄생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그레브의 국가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식민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리비아는 1951년에, 모로코와 튀니지는 1956년에, 모리타니는 1960년에, 그리고 알제리는 1962년에 해방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마그레브의 역사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루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론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옛날에 한집에 사는 고양이와 쥐와 개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대개 이렇게 시작되죠. 고양이의 목표는 항상 쥐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 때마다 쥐는 숨어버리고 개가 쥐를 구하러 옵니다. 쥐가 쥐구멍 속에 있던 어느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는 개가 왔으니 고양이는 도망쳐 버리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태연하게 나왔죠. 그러나 그 순간 고양이가 그를 덮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쥐를 먹고 나서 입술을 핥으면서 만족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야!”

그러면 이제 마그레브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을까요? 마그레브의 다섯 나라-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는 공통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레브가 공동체적 운명 속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즉,

- 왜 마그레브인가?
- 어떻게 마그레브를 형성하는가?
- 마그레브와 세계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마그레브의 형성이 여러가지 이유-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등등의 이유-로 인해 필수 불가결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역사적인 면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은 동일한 왕조

의 통치하에 있었던 적이 많았고,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모라드 almohades 와 파티미드 fatimides 시기 동안 마그레브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마그레브 국가들과 그 국민들은 통합의 필연성을 절감하고, 식민기간 동안조차도 마그레브를 되찾아 독립연합을 이루기를 열망했습니다. 불행히도 몇몇 요인들이 이 실현을 방해했죠. 지리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마그레브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모리타니를 제외한 마그레브의 모든 나라들은 지중해와 사하라사막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인 면에서도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공통된 역사와 지리,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마그레브 국가들은 그들의 통합과 공통의 미래를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요인들이 통합에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유럽 통합과 같은 지역 통합체의 대두가 그 대표적 요인입니다. 마그레브는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상당 부분을 유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의 유럽에 직면하여 마그레브는 통합되어야 하고 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금의 세계의 경제적인 진보는, 제 3세계 국가들, 또한 마그레브 국가들에게 기술적인 혁명을 피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그레브의 각 국가들이 서로의 수단과 노력을 통합하여 여러 프로그램, 기획, 정책 등을 서로 조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과학적 발명과 마그레브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다기 보다는, 기존의 기술, 지식들을 최대한 흡수, 이용하여 장차 마그레브 고유의 기술과 연구를 일구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그레브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레브의 다섯 나라는 실제로 7천만 인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마그레브인이 1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확장될수록 사람들은 등급경제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현금의 세계에 있어서 산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그레브 경제는 상호 경쟁적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각 나라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예를 들면 튀니지나 모로코의 서양 자두, 속성 야채와 직물이 그 경우죠. 다른 경

우에선 다섯 나라들이 상호보완을 합니다.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에 있고 모로코나 모리타니에는 없는 석유나 가스가 그 경우죠. 알제리에서는 중공업을 육성하고 있고, 반면 튀니지와 모로코는 농공업이나 가공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상호보완적 분야에서는 마그레브 국가들은 서로 협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경쟁적 분야에서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합리화하고,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마그레브의 어떤 국가도 자생적으로 산업기초를 형성할 만한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뿐일지라도, 어쨌든 경제적인 점에서 마그레브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마그레브의 통합은 당위적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공통의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의 양상을 고려하더라도 마그레브는 필요합니다. 단일한 형태의 세계 문화가 대중 매체 덕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반면 도처에서 획일화된 반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견뎌내지 못한 반동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자폐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건설적인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사회적 계획,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마그레브의 형성은 후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 2월 17일, 마그레브의 다섯 지도자들이 마라케치 Marakech에서 채택한 선언은 이러합니다. “국제적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과 상호보완, 특히 마그레브의 각 국가들과 그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도전 등등의 변화는 연대와 상호협조의 강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그레브 형성의 당위적 근거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왜 마그레브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두번째 질문인 “어떻게 마그레브를 형성하는가?”에 대답할 때입니다.

마그레브 국가들은 두 가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따르지 말아야 할 모델입니다. 즉 과거에 아랍에서 정치 권력에 의해 상층부의 지도하에 급속하게 형성되었던 통합의 모델이 그것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아랍의 연합체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그레브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957년부터 각 부문에서 점진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루어 나간 유럽통합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현재 마그레브의 각 국가들은 마그레브 통합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고도 발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그레브는 한국의 철학자 이황이 말한 “진리는 이론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그레브의 다섯 지도자는 1989년 2월, 모로코의 마라케치 Marrakech에 모여 U.M.A.(마그레브 아랍연합)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마라케치 Marrakech에 앞서 1988년 후반기에 진행된 여러 마그레브 회합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랍정상회담의 일환으로 1988년 6월 10일의 알제리 제랄다 Zéralda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마그레브위원회가 알제 Alger와 라바 Rabat에서 두번 모여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즉, 재정세무분과, 경제분과, 교육문화정보분과, 사회복지분과, 기관설립분과가 그것입니다. 마라케치 Marrakch 정상회담에서는 UMA의 창설에 대한 조약과, 거기에 관련된 선언서를 채택했고, 또한 마그레브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들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1. 선언

일반론적 성격을 띤 이 선언은 마그레브 연합의 깊은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그레브 국가들과 국민들이 직면한 도전을 일깨우고 현금의 상황에서 지역 통합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의 가호와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마그레브 아랍연합은 결속된 의지로 상호보완하는 공동체로서 유사한 타 지역 통합체들과 협력한다. 연대적 연합체로서 국제 대화의 증진에 기여하며, 선(善)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힘으로 마그레브 아랍연합 소속국들의 독립을 강화한다. 우리의 것을 지켜 나가면서 국제 연합체들과 협력하여, 정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권리가 지배하며 성실한 협조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계 질서를

확립한다.”

## 2. 조 약

19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이 조약은 그 서두에서, 통합에 대한 마그레브 국민과 지도자들의 깊고 확고한 열망과 통합의 결과, 통합에서 기대되는 효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업무착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1항에서 3항까지에서는 국제적 차원, 방위 차원, 경제적, 문화적 차원 등에서의 연합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항에서 13항까지는 연합의 조직과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4, 15항은 구성국가간의 평화적인 관계와 우호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국가들이 지켜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의 조항들에서는 특히 아랍국가나 아프리카 공동체의 국가들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쌍무협정이나 제 3 국가들과의 협정 체계에 관련된 문제와 조약의 수정, 비준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명한 날로부터 여섯 달 내에 비준절차가 완성되어야만 했습니다. 마라케치 Marrakech 조약은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소속국가의 수반들로 구성되고 각 수반들이 6개월씩 순차적으로 주재하는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인 의장단.

--의장단 회기를 준비하고 조사위원회와 전문가료 위원회에서 제출된 문제들을 검토하는 외무장관회의.

--연합의 업무 조사 위원회. 이때 각 나라는, 이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연합의 업무를 책임지는 각 정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의장단에서 임명하는 전문가료위원회.

--각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고, 의장단의 최고직장의 교대에 따라 그 본부가 최고직장 소속국으로 이동하는 총 사무국

--매해 회기마다 소속국들의 입법기관에 의해 선출된 매 국가의 대표 10명으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이 자문회의는 의장단 회의가 제

출하는 계획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2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최고 사법회의. 이 대표직은 6년 임기직이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고 사법회의는 조약과 연합 내에서 이루어진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의장단 회의가 제출하는 사법적인 문제에 자문을 합니다.

### 3. 결 의 안

정상회담에서는 마그레브위원회와 산업분과위원회의 작업을 추진하고 연합의 각 기구들로 하여금 결의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며,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라바 Rabat에서 모인 재정, 세무분과위원회는 세무, 재정의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조화를 촉구하며 투자, 교류의 보장과 자금 출자, 보험 등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단계적인 화폐정책의 조정(쌍방 동의를 지불 일반화와 마그레브 보상기구들의 설치)을 제안했고, 각각 단기적, 중 장기적인 세무정책의 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는 마그레브 통합의 결과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UMA 예산에 필요한 재정책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제 Alger에서 모인 경제분과위원회는 상업교류에 있어서 교류 특혜의 일반화, 비관세장벽의 철폐, 상업정보망의 구축을 건의했고, 또한 생산활동, 서비스, 기초공사, 통신,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기구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누아코트 Nouakchott에서 모인 교육, 문화, 정보분과위원회는 고등 교육, 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특히 학제의 통합,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의 통합 추진, 마그레브 대학의 현황 조사, 교육기자재 산업분야의 발전, 수자원 및 농업의 과학적 연구의 발전방안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그레브 서적 배포를 권장하고, 출판사와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에서는 문화, 청년, 스포츠의 영역과 정보소통의 분야에서의 마그레브의 강력한 협력을 촉구

합니다.

--튀니지 Tunis 에서 모인 사회,인간,안보분과위원회는 이동, 거주, 노동, 재산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며, 마그레브 국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마그레브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마그레브의 아랍-회교적인 성격을 고수하도록 할 것과 동시에 마그레브공통의 신분증명서를 제작하고 내적, 외적인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트리폴리에서 모인 기구설립분과위원회는 기구의 문제와 마그레브 연합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몇차례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라케쉬 조약에 따라 여섯 달 마다 정상회담이 열렸고 모든 분과-외교, 사회, 재정, 우편, 전기통신, 위생사업 등-에서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마그레브는 모든 분야의 활동을 다 포괄하고자 합니다. 정상회담이 튀니지, 알제리에서 열렸고 최근에, 즉 올해 초에는 리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의 라스 라누프 Ras Lanuf에서 1991년 3월 10,11 일, 양일에 걸쳐 열린 마지막 마그레브 정상회담은 몇가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투자과 무역을 위한 마그레브협정
- 사회보장을 위한 협정
- 해상 협정
- 속달우편에 관한 협정 등

이러한 실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통합의 과정이 신중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레브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저는 외부세계로의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그레브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그레브는 전략적인 지리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그레브는 유럽과 매우 가깝지만 동시에 아랍세계와 아프리카 세계의 본질적인 구성인자가 됩니다. 하산 2세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하나의 나무와 같다. 뿌리는 아프리카에 박고 있고 그 가지는 유럽을 향해 뻗어 나간 나무이다.” 이 말은 마그레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마그레브의 외부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세계와의 관계는 연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고, 유럽과는 대화, 마슈레크와는 연합, 그리고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는 협력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와의 연대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됩니다. 그 연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마그레브는 아프리카의 입장과 언제나 보조를 맞추는데, 예를 들면 인종차별 철폐나 국제기구에서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프리카의 주장을 공유합니다. 즉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창출과 아프리카의 막대한 부채의 청산, 무역관계 개선 등을 주장합니다. 마그레브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간부 양성 정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로코는 5천명 이상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발표 주제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만큼, 여기에서 저는 잠정적으로나마 마그레브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관계가 정치, 경제의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며 전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사실 이는 별 무리없는 전망인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럽과의 관계는 대화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리비아를 제외한 마그레브 국가들은 유럽 공동체와 우호관계를 가짐으로써 통상 쿼터제 없이 물건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연안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협력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유럽은 유럽의 남쪽에 바짝 위치한 마그레브에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레브 또한 유럽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경제적, 인간적, 문화적인 관계가 이미 심화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만큼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유럽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한 가지 경우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름 아닌 스페인과 모로코 간의 ‘확고한 연결’을 실현하고자 하

는 계획입니다. 그 연결이 교량, 혹은 해저 터널로 실현될지 모르니  
 다만, 설부른 속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확고한 연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계획  
 입니다. 아프리카대륙과 유럽대륙이 붙어 있어 단일한 대륙을 형성하  
 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클레스가 두 대  
 륙을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확고한 연결 계획이란 다시  
 그 둘을 하나로 융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유럽과 아프리  
 카를 가르는 지브랄타 Gibraltar 해협의 너비는 단지 11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연결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  
 더러 이미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브랄타 해협을 통  
 한 이 연결은 현재 존재하는 해협을 통한 어떠한 연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두 일본 섬들을 연결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라의 두 부분을 잇는 작업라는 의미만을  
 가집니다. 영불해협에 건설 중인 해저 터널은 영국을 유럽대륙에 연  
 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브랄타 해협의 연결공사는 두 대륙을 이  
 어주는 최초의 작업이 됩니다. 스웨덴 북부, 즉 북극 근처에서 출발  
 한 자동차는 아무런 장애없이 남아프리카의 수도까지 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슈레크라 불리는 아랍의 나머지 세계와 가지는 관계는 유럽과의  
 관계와는 물론 다릅니다. 이 세계와의 관계는 단일성이라는 말로 요  
 약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그레브 국가들은 현재의 지역 통합을 이끄  
 는 모든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아랍세계라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  
 은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랍 나라들은 조만간 역사  
 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에 의해 연합을 실현할 것  
 입니다. 물론 현재 몇가지 요소들이 이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연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그레브의 국가들은 이를  
 믿으며 마그레브의 형성이 바로 아랍 통합을 향한 하나의 도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그레브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차례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관계를 정의할 두 개의 중요한 단어들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과 우호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나라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사실 마그레브의 세 나라인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는 서울에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마그레브와 한국의 협력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역동적 국가들 중의 하나인 한국은 마그레브에서 매우 훌륭한 시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그레브에서의 연합 판매와 직접 투자를 실현함으로써 아시아의 국가들은 마그레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리적인 조건과 유럽-마그레브 간의 특별 조약을 고려할 때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그레브의 노동력은 매우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마그레브의 동반자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은 마그레브와 한국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그레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따라서 약간 피상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노자 老子の 조언을 따르지도 못했고, “말을 조심하라. 또한 외적인 행동을 조심하라. 언제나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라. 욕의 티는 지울 수 있지만, 실수한 말은 복구할 수 없다. 경박하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한 울곡의 조언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한 철학자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관대함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성 역>